

뒤틀린 사물 속 세상의 부조리

February 27, 2017 | 함혜리 기자

개념미술가 안규철 개인전 '당신만을 위한 말'



노 모양 다리 가진 의자... 안장만 두 개인 자전거... 평범한 물건 뒤집어 삶·사회의 이면 돌아봐

다리가 유난히 긴 나무의자가 있다. 의자의 다리는 배를 짓는 노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니 의자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를 저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의자의 꿈이 무력무력 자란다면 어떤 모습일까?

자전거 두대가 있지만 어느 것도 달릴 수 없다. 한대는 안장만 두개 가졌고, 다른 한 대는 핸들만 두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낭패라는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개념미술가 안규철(62)의 작업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환기시키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다. 평범한 사물의 기능과 성격을 뒤집거나 유희적인 상상으로 그것을 다른 맥락 속에 옮겨 놓음으로써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일상의 이면이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시각적이고 조형적인 영역에 한정됐던 미술을 언어적, 공간적, 촉각적, 청각적 경험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안규철 작가의 개인전 '당신만을 위한 말'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제갤러리 1관에서 열리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안 보이는 사람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대규모 개인전을 가진 지 2년 만이다. 주로 미술관에서 작품을 선보였던 작가가 국내 대표적인 상업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 것도 관심거리다.

'안 보이는 사람의 나라'가 문학적인 서사서구 기반으로 건축적인 설치작업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면 이번 전시는 구체적인 사물의 상태와 물성에 주목한 오브제 작업과 서사적 내러티브를 이끌어 내는 설치작업이 주를 이룬다.

작가는 "사유의 과정이 모든 작업의 출발점이 되지만 이를 구현하는 과정, 즉 물질에 뜻을 입히고 이야기를 입히는 과정 또한 세계 중요하다"면서 "평범한 사물들을 관찰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고 텍스트



설치작업 '머무는 시간'에 대해 설명하는 작가 안규철. 그가 보여 주는 어긋나고 뒤틀린 사물들은 궁극적으로 관객을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사유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다.

와 이미지, 말과 사물을 연결하는 크고 작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시각화할지를 고민한다"고 말했다.

전시장 벽면에 설치된 작품 '머무는 시간'은 지난해 여름 평창동 자택에서 유난히 크게 들리던 계곡의 물소리에 대한 사유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지금까지 형태로 미세한 경사를 이루게 만든 나무 레일들을 전시장 한쪽 벽면에 설치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나무 공을 떨어뜨리면 서서히 레일의 경사를 따라 굴러 내려가도록 만든 것이다.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빗물이 땅에 내려 머무는 덕분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길게 지면되는 시간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결국 세상이 머무는 시간이고, 그것을 길게 늘리려고 하지요."

중력에 의해 높은 곳에서 아래로 구르면서 여러 가지 우연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는 공의 움직임에 착안해 낙하를 최대한 지연시키도록

레일의 궤도를 만들었다. 그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공이 레일에 '머무는 시간'은 결국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우리 삶의 은유"라고 말했다.

캔버스작업 '달을 그리는 법 II'는 실제 사물과 이미지 사이에 발생하는 의미의 간극을 보여 준다. 벽에 빛을 비추서 생기는 보름달처럼 둥글고 밝은 원을 각기 다른 모노톤의 색상이 칠해진 10호 크기의 캔버스 위에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작가는 "빛을 훔쳐 낸다는 무모한 도전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림은 빛도 아니고 달도 아닌 추상적인 도상인 말"이라며 "구체적인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보름달이 지닌 다양한 추상적 이미지를 표현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긋나고 빛나지 않은 상황, 역설적이고 뒤틀린 사물을 통해 우리의 기대와 이해의 바깥에 있는 현상을 환기시킨다. 다리가 배를 짓는 노로 변형된 '노/의자'는 한 곳에 머무는 기능의 의자가 노를 저어 멀리 떠나기를 꿈꾸는 상상을 보여 준다. 펠트로 만들어진 소리를 낼 수 없는 '과묵한 종'을 통해 침묵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제안하고 있다. 나무 상자에 바퀴를 담은 '상자 II'는 이야기와 사물을 결합한 오브제 작업으로 나무상자가 그 안에 있는 바퀴와 함께 언젠가 먼 곳으로 떠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

전시의 제목이 된 작품 '당신만을 위한 말'은 진화색 펠트로 만들어진 부조형의 작업으로 온갖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소리를 들이주는 커다란 귀를 연상하게 한다. 작가는 "나의 고민과 괴로움을 털어놓으며 위로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조각을 생각했다"며 가만히 기대어 귀 기울여 볼 것을 권했다. 전시는 3월 31일까지. 글·사진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